

회원사동정

포스코

*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업그레이드 *

포스코는 최근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쓰이는 열연강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압연 중에 작업롤을 연삭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 롤을 교체하지 않고 연속 압연할 수 있는 코일 매수를 종전보다 1.5배 늘리고 코일당 압연시간도 단축하였다. 또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으로 스테인리스강의 고질적인 표면결함도 대폭 개선했다.

주방기구·화학용기·파이프 등의 소재로 쓰이는 스테인리스 300계 강종은 표면거침 결함이 주로 발생했는데, 조압연 구간에서 압연할 때 누르는 힘을 분산시켜 압연 하중을 재조정하고 재질이 강한 고속도 공구강 작업롤을 적용해 이를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자체 설비개발과 보완을 통해 제품 표면에 다른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고 표면 균형 등 결함을 크게 줄였다. 이 결과는 스테인리스 제품 표면에 발생하는 각종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갈아 주는 공정인 코일 그라인딩률을 줄였다.

* 산세강판 녹 방지로 고객만족 쑥쑥 *

광양제철소 열연부는 최근 설비를 개선,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표면을 세척한 산세강판을 공급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산세공정은 열연강판을 염산탱크에 통과시켜 강판의 표면에 생긴 녹을 화학적인 반응으로 제거한 후 세척탱크에서 물로 염산을 씻어내 재가공용 PO강판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그동안에는 산세공정에서 묻어 온 염산이 강판을 부식시키면서 녹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세척 수가 염산탱크로 흘러 들어가 산의 농도를 떨어뜨려 염산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열연공장은 염산탱크와 세척탱크 사이에 세척수를 분사해 주는 노즐을 추가로 설치하고 자연적으로 차단막이 형성되도록 해 세척수가 염산탱크로 유입되는 역류현상을 방지하였다. 염산이 녹아 있지 않은 깨끗한 물을 강판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급해 염산의 사용량을 30% 이상 줄였다.

일연부는 이번 활동으로 산세강판 표면에 발생하던 녹을 없애 고객사들의 불만과 클레임을 크게 줄이는 한편, 염산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했다.

현대중공업

* 4천3백TEU급 컨-선 동시 명명 *

현대중공업은 덴마크 A.P.몰러사로부터 수주한 4천3백TEU급 컨테이너선 두 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다.

이들 선박들은 프랑스 국립과학협회장의 부인인 캐서린 카쳐 여사와 A.P.몰러사의 운항담당사인 머스크 컴퍼니 리미티드사의 이사 부인인 질리안 메리 베이커 여사에 의해 “머스크 지론드”와 “머스크 게어로흐”로 각각 명명되었다.

이 선박은 현대중공업이 2000년에 수주한 선박으로 길이 292, 폭 32.23, 깊이 21.7미터이며, 자체제작한 5만8천6백 마력급 엔진을 탑재하고 24.1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 16만톤급 원유운반선 명명 *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K.G.엡센사로부터 수주한 15만9천톤급 원유운반선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다.

이 선박은 노르웨이 텐 놀스케 은행의 한스 피터 아스씨의 부인인 매릿 느갈드 아스 여사에 의해 “SKS 씨니”로 명명되었다.

이 선박은 K.G.엡센사로부터 2000년 6월에 수주한 선박으로 길이 274.32, 폭 48, 깊이 23.1미터이며, 현대중공업이 자체 제작한 2만5천3백2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고 15.75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 세계선급협회 힘센 엔진 공식 승인 *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 자체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동급 세계 최고 성능의 중속 디젤엔진인 힘센엔진이 최근 세계선급협회로부터 공식 제품 형식 승인을 받았다.

“힘이센엔진”은 기존의 엔진 개발 기술의 고정관념을 극복한 고출력, 고내구성, 저연비, 저중량 요인을 모두 갖춘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첨단 엔진이며, 실린더 한개당 출력이 200kW 및 300kW로 세계 유수의 엔진보다 우수하여 개발과 동시에 선박의 주·보기엔진과 육상 내열발전용 엔진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다.

우리말 힘센에서 따온 HIMSEN 엔진은 시간당 600~2천610kW의 출력이 가능해 지난해 첫 출시 이후 해외 유명선사인 미국 OSG, 독일 NVA, 러시아 소브콤 플로트사 등으로부터 총 70여대를 수주하는 등 급속

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조선강국의 기술적 위상제 고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기술과 우수품질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 세계최초 육상건조 해양설비선 명명 *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자체 중량 4만7천톤 적재중량 33만톤급 초대형 “부유식 해상 원유저장설비선”의 명명식을 가졌다. 이 선박은 오바세키 사장의 부인에 의해 “아메남 FSO 유니티” 호로 명명될 예정이다.

이 선박의 건조 방식은 육상에서 260개의 대형 블록을 제작하여 완전 조립한 후 스키딩 공법으로 바지선에 선적하여 공해상으로 이동시키고 바지선을 잠수시키면서 본선을 진수시키는 공법이다.

이 해양설비선은 2000년 토탈피나엘프사에서 수주한 것으로 길이 313미터, 폭 63미터, 높이 32미터, 무게 4만 7천여톤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갑판의 넓이가 축구장 3개 크기이며, 1백30명이 동시에 승선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갖추고 있다.

두산중공업

* 영 BNFL 발전설비 사업 협력방안 논의 *

두산중공업과 세계 유수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사의 대주주인 영국 BNFL사가 국내외 발전시장에서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두산과 웨스팅하우스는 양사의 보완적인 자산과 강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이며 상호 수익적인 사업관계를 통해 고객이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세계적인 원자력발전 플랜트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되자는 내용의 공동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양사는 앞으로 세계 원전시장 공동 진출, 차세대 원전 기술 공동 개발, 기업문화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두산중공업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설비 제작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제휴를 체결하고 양사간 협력관계를 시작하여 국내외 원자력 발전설비 사업분야에서 활발한 동반협력관계를 펼쳐왔다.

양사는 영광원자력과 울진원자력의 핵증기공급계통의 설계 및 제작에 함께 참여하면서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모델을 정립했으며, 앞으로 건설될 신고리 1, 2호기 건설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 국산 원전 설비 미국에 수출 *

두산중공업은 5천만 달러 규모의 1,200MW급 미국 세퀴야 원자력발전소용 증기발생기 4기 제작을 마치고,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한 원전 핵심설비를 미국으로 첫 수출하였다.

두산중공업이 수출한 이번 증기발생기는 1기당 직경 5m, 높이 22m, 총중량 340톤에 달하며, 내부에 길이 20m짜리 U자형 튜브 5천여개가 들어가 있어 원자로에서 가열된 경수를 이용해 고온고압의 증기를 만들어 터빈발전기에 공급해주는 핵증기 공급계통의 핵심 설비이다.

특히 고온고압의 증기를 다루기 때문에 원자로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직결됨으로써 고도의 설계 및 제작능력이 요구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증기발생기 제작 과정에서 ATSG라는 튜브 지지대를 국산화하여 첫 해외수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입증, 향후 증기발생기 수주 경쟁력을 한층 높여 원전 설비 기술 수준을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현대자동차

* 쏘나타·싼타페, 초기품질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 *

현대자동차는 미 J.D. Power사가 발표한 하반기 초기품질지수 평가 결과, 중형차 부문에서 뉴EF쏘나타가 2위, SUV 부문에서 싼타페가 3위를 기록하여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체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J.D. Power사의 담당자는 “쏘나타는 동급차종에서 시보레의 말리부에 이어 2위에 랭크되었으나, 앞서 발표한 상품만족도 조사 결과 중형차 부문 1위를 고려할 경우 사실상 고객으로부터 가장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차종”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현대차의 품질이 선진 자동차 메이커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한 성능 및 디자인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해 2010년 글로벌 텁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IBM과 텔레매틱스 솔루션 개발 협력 *

현대자동차와 한국IBM은 코엑스에서 양사간 협력으

로 텔레매틱스 관련 통신인프라 및 포탈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사업계획을 함께 발표하였다.

현대자동차는 IBM과 공동으로 통신 인프라 및 상담원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등 관련부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이 시스템은 다양한 사업협력모델이나 규모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성, 유연성, 확장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내년 상반기중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긴급구난, 차량추적, 길안내, 뉴스, 기상, 증권, 이메일 등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선인터넷과 텔레매틱스 단말기간 유무선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IBM과의 솔루션 부문 협력은 물론 차량내장형 단말기를 LG전자와 현대오토넷과 공동으로 개발 공급하며, 향후 북미 등 수출시장까지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 93,000 DWT급 셔틀 탱커 명명식 *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에서 노르웨이 UNS사로부터 수주한 93,000 DWT급 크루드 오일 셔틀 탱커선의 명명식을 가졌다.

이날 명명식에서 이 선박은 PGS Production의 사장인 Mr.Edgar Alsaker의 부인 애니타 엠 부턴 여사에 의해 “PETRONORDIC”으로 명명되었다.

이 선박은 UNS사로부터 발주받은 셔틀 탱커 시리즈 선 중 첫 번째 호선으로 길이 235m, 폭 42m, 깊이 21.3m로 14.7노트로 운항된다.

* 138,000m³급 LNG선 명명식 *

삼성중공업은 영국의 BP사로부터 수주한 최첨단 LNG선 3척중 첫 호선의 명명식을 가졌다.

이 선박은 삼성이 BP사로부터 수주한 3척의 LNG선 가운데 첫번째 선박으로 BP그룹의 앤킨 부회장에 의해 “British Trader”로 명명되었다.

한편 이 선박은 138,000m³의 액화천연가스를 적재, 운반할 수 있는 멤브레인형 LNG선으로 멤브레인 마크-III 타입이라는 최첨단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기존 멤브레인 형에 비해 총중량이 가벼워 운항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질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합금강보다 내구성이 크고 국산화되어 있는 스텐레스강을 사용하고 용접공수도 절반이하로 낮출 수 있어 건조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우조선

* 아프라막스 탱커 2척 수주 *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의 유조선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하였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Teekay사의 노후선 대체물량으로 길이 249.9m 폭 44m 깊이 21m의 크기에 14.7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이 선박은 수주과정에서 최근의 해양 환경오염 방지 규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실 연료유 탱크의 이중 선체 구조를 적용키로 하는 등 선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첨단 고급 사양이 적용됐다.

이 두척의 선박은 오는 2004년 하반기 각각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 중형 컨테이너선 6척 수주 *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극도의 해운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Post-Panamax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냉동 컨테이너 약 1,200개를 적재하고 23.3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기관실 전방의 모든 화물창에 위험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8피트 6인치 컨테이너와 9피트 6인치 컨테이너를 임의로 섞어서 적재가 가능하도록 첨단 설계되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계속되는 세계 해운시장의 침체 속에서 주력선종인 LNG선, 유조선에 이어 컨테이너선까지 수주를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안정적인 물량 확보는 물론 향후 수익성 확보에도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 철강분야 신기술 특허 획득 *

포스코건설이 철강 플랜트 분야에서 “탈가스설비의 수질향상 장치 및 이를 활용한 수질향상 방안”의 새로

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 기술은 제강공정에서 탄소와 각종 유해가스를 없애 가공성이 높은 철을 만들기 위한 탈탄 및 탈가스 작업을 실시하는 탈가스설비의 성능향상과 관련된 기술이다.

포스코건설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수처리설비의 능력증강 없이 먼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식의 먼지포집 탱크와 먼지 침전조를 설치하면 수처리설비로 유입되는 먼지의 양을 줄여 과부하를 막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처리수의 수질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습식방식의 먼지포집 탱크는 건식방식에 비해 설비가 작아 적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별도의 부대설비가 필요없어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 베트남 포미나사로부터 CGL, CCL 수주 *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의 포미나사로부터 아연도금강판(CGL) 및 칼라강판(CCL)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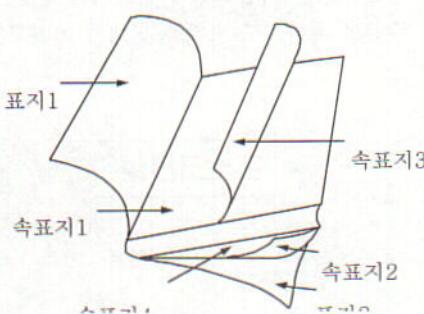
베트남 빈딩성에 건설될 이 프로젝트에서 포스코건설은 CGL 및 CCL 설비의 설계와 설비공급을 담당하게 되며, 공사기간은 계약 후 9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호치민에 베트남 최초의 철골조립당인 다이아몬드 플라자와 철구조물 가공 공장인 포스리라마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호치민에 연산 2.2톤 규모의 칼라강판 생산공장과 하이퐁에 연산 20만톤 규모의 철근, 선재공장 등을 건설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광고/회원사 소식 게재 안내 (042)828-6511~2

대한용접학회지 광고 계재료 안내

게재면수	필름규격 (A4)	광 고 료		
		1회 계재	색 상	흑 백
표 지 1	21×30cm	500,000원	칼라	"
표 지 2	"	450,000원	"	"
속표지 1	"	450,000원	"	"
속표지 2	"	350,000원	"	"
속표지 3이후	"	300,000원	"	150,000원



* 기타사항 *

- ① 6회(1년분) 계재시 10% 할인
(표지1,2, 속표지1 제외)
- ② 광고필름 제작시 제작비 별도
- ③ 기사식 단색광고는 15만원

광고문의 안내(042-828-6511)